

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에 대한 고민

110125

전누리

○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많은 분들께 주민발의 운동의 상황에 대한 질문, 그에 대한 걱정, 우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. 8만 여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부터 서명운동이 성공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까지.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의견들에 많이 속상했습니다. 이 운동에 어떻게 힘을 줄지에 대해 얘기하시기보다는 이번에 문제가 된 동아일보의 '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, 목표의 5% 그쳐'의 기사와 별 다르지 않는 의견만을 주시는 것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. (운동본부 내 아마 저보다 이러한 의견들을 더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시고, 저보다 더 많이 맘을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.)

○ 하지만 그러한 의견이 (무척이나 섭섭하긴 하지만) 한편으론 우리가 해야 할 현실적 판단들을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과연 지금 우리의 역량, 혹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주민발의 운동은 성공할 수 있겠는가? 운동이 실패했을 때 가져올 역풍은 어느 정도까지인가?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? 등등.

○ (주민발의 운동의 가능성 판단) 저는 우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서명운동의 성공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을 내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 상황의 객관적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겠죠. 사실 제 주관적 판단으로는 서명운동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기의 문제도 있을뿐더러, 특히 교사 등의 지지를 얻고 가는 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저는 궁금합니다. 운동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, 아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. 함께 현실에 대해 판단을 해 봐야 합니다. 그에 따라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모든 역량을 투여할 정도의 실천을 결의해야 하고,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'주민발의 운동'(조례제정 운동이 아니라)을 어떻게 접는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: (불발?!)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간다면 주민발의 운동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. 성공 아니면 답은 없습니다.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불발이더라도 운동을 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니냐는. 저는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. 이미 서울의 주민발의 운동은 전체 조례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. 실패에 대해 서울본부는 내부적으로 자기위안을 삼을 수 있겠지만, 그 외부적으로, 즉 타 지역 및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추진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올 것입니다. 다시 말해, 우리의 실패는 '주민발의 운동의 실패'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전체 '학생인권운동의 실패'로 받아들여 질 것이란 점입니다.

: (청소년 서명)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법적요건이 안 맞더라도 청소년들의 서명을 받아 서명수를 채우면서 주체의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그 역시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.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위안을 삼을 수 있으나 외부의 시각으로는 실패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.

○ (정치적 명분 있는 중단) 만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서둘러 중단이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. 주민발의의 마감 시점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가 감당해야할 위험이 계속 커지기 때문입니다. 다만 이 중단이란 결정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명분입니다. 그 중단을 가능케 하는 정치적 명분. 저는 '교과부의 시행령 개악'이 정치적 명분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교과부의 시행령 개악저지가 막아야할 큰 문제라고 보고 이를 위해 주민발의 운동을 중단하고 개악저지 투쟁에 총력을 쏟겠다는 것. 물론 이런 명분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그에 따라 개악저지투쟁의 수위를 더 높여야합니다. 아직 시행령의 입법예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아무래도 1월 말 시행령 개악저지 투쟁의 수위를 높여야 할 때 중단을 선언하며 수위를 높이는 것은 어떨까 고민해봅니다.

: 시행령 개악과 주민발의 운동은 모두 놓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다만 (패배적인 사고이지만) 우리가 그 두 가지가 가져올 위험을 생각했을 때 저는 시행령 개악보다 주민발의 운동의 실패가 더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시행령 개악은 (학칙인가권이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다면)이후에도 계속 쟁점이 되면서 교과부와 교육감, 교과부와 우리와의 싸움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○ (평가) 한편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평가는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주민발의 운동 자체에 대한 평가 뿐 만 아니라 학생인권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철저한 자기반성, 평가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.